

# 광주·전남 자영업 창업-폐업 악순환 심각

## 간이사업자 비중 32%...폐업률 99.3%나 음식·숙박업 과잉...창업준비 철저히해야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자들의 사전 준비없는 창업으로 창업대비 폐업률이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철저한 창업준비와 과밀한 분야의 무분별한 진입 지양, 협동조합 등 조직화·협업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의 특징 및 시사점'자료에 따르면 2011년 광주·전남지역의 자영업체는 20만1000개, 종사자수는 38만5000명으로 각각 지역 사업체의 86.9%, 종사자의 35.4%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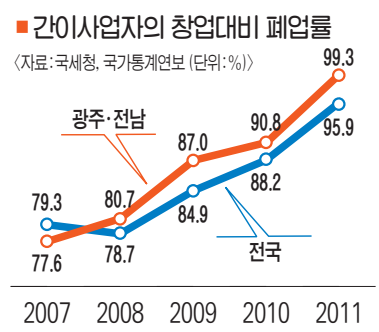
이는 사업체와 종사자 비중 모두 전국 평균(각각 85.5%, 32.1%)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전남이 광주에 비해 높은 편이다.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자의 영입이 19.2%로 전국 평균(17.7%)보다 높으나 매출액은 1억3250만원으로 전국 평균(1억5270만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의 총사업자 중 직전 1년간의 공과금(부가가치세 포함)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 비중은

2011년 32.3%로 전국 평균(28.4%)보다 높은 수준이고 이 가운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비중의 합은 42.6%로 전국평균(37.4%)에 비해 5%p나 높게 나타나는 등 영세한 생활형 서비스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창업준비기간 6개월미만 창업자의 비율이 2011년 64.7%로 전국 평균



(60.4%)에 비해 높고 창업대비 폐업률(99.3%)도 전국 평균(95.9%)에 비해 높아 준비가 부족한 창업이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충분한 사전준비 없는 창업으로 지역 자영업자들이 창업→폐업→재창업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면적당·인구당 자영업 업체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소규모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큰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스스로 과밀업·상권정보시스템'에 대한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고 생활형 서비스업으로의 창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회서

업과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창업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사업종간 협동조합 등 공동체 형태의 자발적인 조직화·협업화를 통해 영세성을 극복하고 자영업자들이 다양한 지원정책을 쉽게 인지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의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대형업체들이 적대적인 관계를 지양하고 지역내에서 상생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7/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졸음운전 큰 일 나요”

### 롯데백화점 광주점 ‘거리 캠페인’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나쁜 운전 습관으로 졸음운전 위험이 있는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졸음운전 방지 캠페인’을 벌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졸음운전 사고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백화점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졸음운전 방지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음료, 냉커피, 각종 차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또 졸음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상품도 소개하는 등 ‘정보 알리터’ 역할까지 하고 있다.

하루 평균 300~400명의 택시 기사가 이용하고 있으며 입소문으로 알려지면서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올해로 2년째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을 오는 8월 말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류민열 롯데백화점 광주지역장은 “택시 기사들이 졸음이 풀리면 백화점으로 직접 찾아올 만큼 ‘무료 차 서비스’의 인기가 높다”며 “이 행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진행할 예정이며 교통안전에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캠페인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7/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여성 건강에 좋아요”

2일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유신열)는 지하 1층 ‘정관정’ 매장에서 신제품 ‘화애락 썬’을 선포했다. 이 제품은 여성 호르몬에 도움이 되는 홍삼농축액으로 30~50대 여성들이 많이 찾고 있다.

(주)광주신세계 제공

## “오렌지 수입 늘어 농가 피해 정부, FTA 대책 마련하라”

### 광주시농민회 성명

광주시농민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광주시에 FTA로 인한 농민 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농민회는 “한미 FTA가 발효된 지 지난 3월 15일로 1년이 지났다”며 “미국산 오렌지 수입액이 전년 대비 33% 급증한 1억 4천800만 달러에 이르는 등 미국산 과일 수입이 크게 늘어 감귤 등 국내 재배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료 값 상승으로 밧데미에 약해나 소를 처분하는 농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난해 소고기 수입량 25만 3000여t 중 미국산을 10만 3000여t 수입해 한우값 폭락에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농민회는 앞으로 동시다발적 FTA

에 따른 중장기적 농업피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FTA에 따른 피해 규모나 대비책,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장관부터 담당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농민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시다발적 FTA에 따른 복합적인 농업피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것과 농산물 수입안정대책을 마련해 식량주권을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농민단체를 포함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7/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농지지원사업’ 논·밭 구분 없었다

### 농어촌공, 범위 확대...임대 제한 두지 않기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운)는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선정자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30대의 젊은 농업인에게 농지매입 및 임대를 통해 농어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농촌 고령화를 완화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첫해인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청년농업인 381명을 선정해 농지매

매, 농지매입비축, 농지임대수탁사업 등으로 81ha를 지원했다.

올해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3월 말 현재 77ha를 지원하는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농지지원범위를 확대해 논과 밭 구별을 없애고 과수 0.3ha 이상을 3년 이상 재배한 경력을 갖춘 경우 과수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애초 매매와 임대를 포함 5ha로 한정된 지원한도를 매매는 5ha, 임대는 제

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만 20세부터 만 39세 이하인 창업농, 후계농 등 농업인 또는 농업 경영을 하고자 하는 지역 젊은이만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농촌 정착을 희망하나 농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에게 경작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업의 취지에 따라 3ha를 초과하는 농지소유자는 제외한다.

신청 및 문의는 1577-7770으로 전화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지사로 하면 된다. /김대성기자 bigkim@

## 광주·전남 주식거래량 증가

광주·전남 지역의 3월 주식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모두 전달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3월 광주·전남지역 주식거래 동향’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은 4억 3458만 주로 전달보다 2.16%(919만주) 증가했다. 거래대금은 2조 3311억원으로 전달보다 17.59%(3487억원) 늘어났다.

지역 투자자들이 전체 거래에서 차

지한 비중은 거래량 2.48%, 거래대금 1.69%로 전달(2.51%, 1.66%)보다 각각 소폭 감소했다.

광주·전남 지역의 거래량 상위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미래산업, 금호종금, SG계열금산, KODEX레버리지 등의 순이고, 코스닥시장에서 솔코바이오, 국제디와이, 에스코브, 오피베이스,대신정보통신 등의 순이다.

7/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농협 ‘생활안전 응급처치교육’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식)는 2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지역본부와 NH농협은행 관계 지점장 등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생활안전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교육은 119 안전센터 구조대원이 농협광주본부를 방문해 심폐소생술(CPR), 자동제세동기(AED)사

용법, 골절 응급처치법, 신고요령 등 고객의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이론교육과 마네킹을 이용한 실습교육으로 진행됐다.

한편 농협광주본부는 관내 전 직원이 안전교육을 이수해 고객 감동 실천 및 국민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협력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7/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새로운 패러다임의 거침없는 뉴스쇼

월~금 밤 9시 50분 방송

대한민국 어디서나  
채널 19번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

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

김미선 TV조선 정치부 기자